

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으로 그 여섯 번째 보따리

'B급 모델' MC몽의 자판기 응용 A급 유머 재밌네



자판기를 소재로 한 광고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씨니텐 음료의 자판기를 응용한 광고가

화제가 되고 있다.

B급 모델의 A급 유머. 래퍼이자 텔런트인 만능스타 MC몽(25)이 주연을 맡은 해태음료 씨니텐 CF가 재기 발랄한 엘리베이터 안 황당 사건으로 유머 광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CF는 총 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라울 텐데'편, '엄청날 텐데'편, '섭섭할 텐데'편 등이다. 배경(엘리베이터)과 주인공(MC몽)은 모두 똑같지만 벌어지는 사건은 다르다.

먼저 '놀라울~'편은 검정테 안경을 쓴 어수룩한 대학생 MC몽이 10층 버튼을 누른 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엘리베이터 숫자판에서 자판기 처럼 공짜 씨니텐이 나온다는 내용이다.

'엄청날~'편과 '섭섭할~'편은 '놀라울~'편의 후속탄 같다. 10층 버튼을 눌렀더니 씨니텐 캔이 하나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내용, 공짜 씨니텐을 기다렸다는 듯 마시려 했더니 '섭

섭하게' 빈 깡통이었다는 줄거리 등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러 편이 시청자를 찾아가는 '멀티' 전략의 광고는 흔해 졌다. 그러나 각편 사이에 이렇게 번뜩이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과장 및 허풍으로 씨니텐이라는 장수브랜드의 이미지에 신선도를 높인 발상도 흥미롭다.

특히 개성과 혹은 B급 모델로 불리는 MC몽의 익살맞고 빈틈 있는 이미지를 고급스러운 유머와 결합해 광고를 보는 묘미를 듬뿍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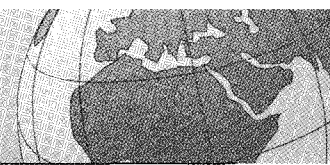
자판기 사업, 예비창업자가 피하고 싶은 사업 4위

웰빙(Well-Being)이라는 소비 코드가 현재 창업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단어로 떠오른 가운데 자판기 창업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임을 나타내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창업e닷컴이 최근 7월 이후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1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웰빙' 업종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유기농 야채 등을 판매하는 건강식품점과 피트니스센터, 헬스클럽 등 건강사업에 응답자중 16.2%와 13.1%가 선호한다고 대답해 선호 업종 1, 3위에 각각 올랐다.

또한 청소대행, 육아대행, 실버도우미 등 각종 대행업



도 14.5%(2위)를 차지해 유망아이템으로 꼽혔다. 또 IT(정보기술)와 인터넷 쇼핑물 사업이 4위, 교육 서비스업이 5위를 차지해 최근 '이태백'들이 취업보다는 창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줬다.

반면 예비창업자들이 꼽은 가장 창업하기 싫은 업종으로는 편의점이 꼽혔다. 많은 창업비용이 소요되는데다 부가가치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편의점 시장이 이미 과열 상태라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물 간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전문가들이 적극 추천했던 배달 업종도 정작 예비창업자들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인력 관리가 어렵고 직접 하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가격과괴형 사업도 기피업종 3위에 올라 잠시는 몰라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맛,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 장기적 사업으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격과괴 아이템은 선호 아이템 9위에도 꼽혀 창업자들 사이에서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업종으로 조사됐다.

자판기 사업은 유행이 짧고 부동산 중개업은 최근 폐업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인 탓으로 각각 피하고 싶은 아이템 4, 5위에 올라있다.

광주시, 자판기 절전 등 에너지 절약책 마련

광주시는 청사내 조명 소등, 실내온도 조정 등 에너지 절약책을 마련,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고유가 시대에 대응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날부터 청사 지하주차장과 복도 조명의 75%, 야간시 외곽 보안등 50%를 각각 끄기로 했다.

실내전등은 절반만 점등하고 낮 동안 창문 쪽 전등은 100% 소등하며 승강기는 홀수층과 짝수층으로 나눠

분리 가동기로 했다.

또 여름철 청사 실내온도를 섭씨 26~28도로 유지하며 청사내 자판기와 냉온수기에 대해서는 전원 공급 및 차단 자동 조절장치인 타이머를 설치해 전기를 절약토록 하는 한편 컴퓨터와 복사기 등 사무기기도 점심시간 동안 전원을 끄는 것을 생활화한다.

이밖에 현재 실시중인 직원들의 차량 10부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과 걷기를 권장하기로 했다.

지하철역 자판기 곁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지하철역에 쓰레기통이 없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테러 대비한다고 쓰레기통 없애는 건 반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아닙니까."

지난 4월말 테러에 대비한다고 지하철 공사가 지하철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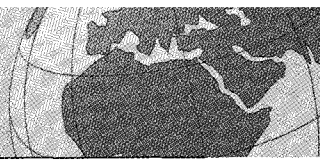
호선 역구내 쓰레기통을 모두 없애는 바람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서 외국 지하철에 비해 그나마 깨끗한 지하철이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하철공사에 따르면 테러예방을 위해 건교부 국정원 등과 협의한 결과,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1~4호선 115개 지하철역 쓰레기통을 모두 치웠다.

일반 쓰레기통 350개는 모두 없었으며 광고용 쓰레기통 567개는 우선 폐쇄한 후 광고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철수기로 했다.

쓰레기통이 사라진 자리에는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



이에 따라 간단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 시민들이 곳곳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핫김에 아무 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승객들도 생겨났다.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는 조모(24)씨는 "화장지를 버리려고 지하철역을 한참이 나 돌아다녔다"며 "결국 밖에 나와서 버렸지만 이렇게 불편하면 벤치 아래나 지하철 내에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2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김모(26)씨는 "지하철에서 군것질하고 남은 종이는 어떡하라는 말이나"며 "지하철공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승객들의 민원이 폭증하자 지하철공사는 화장실 내 쓰레기통 수거는 일단 중단했다. 우선 일부 역에서만 화장실 쓰레기통을 없애고 승객들의 반응을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1~4호선 내에 설치된 100여대 커피자판기 옆에는 특별히 종이컵을 버릴 수 있는 홀더를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지하철 1~4호선에서 연간 1만8000여t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하철역 청소를 맡고 있는 용역직원 박모씨는 "예전에는 쓰레기통만 비우면 됐지만 지금은 승객들을 따라다니면서 휴지를 주워야 한다"며 "특히 승객들이 쓰레기를 벤치 틈 같은 곳에 숨겨 놓는 바람에 청소하기가 훨씬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철은 쓰레기통 폐쇄를 당분간 연기키로 했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쓰레기통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판기 관련 사건 사고

시대가 흥흥하니 자판기 관련 사건 사고도 많다. 주머니가 얇아 지다보니 자판기를 현금보관통으로 보기도 하고, 쪼준하게 자판기 커피 값비싸다고 싸움을 벌

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여기에 간 큰 도둑은 커피자판기를 통째로 훔쳐가기도 하고, 불법채류 외국인들 까지 자판기 털이에 가담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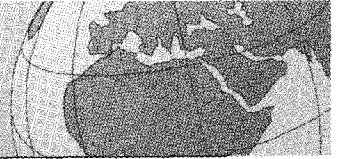
이 부끄러운 인간들에게 자판기가 한 메시지 던진다. "나처럼 정직하게 사시오. 안 그러고 계속 탄 것하면 갈아뭇개 버릴 꺼……."

〈자판기 커피 값 시비 끝 숨져〉

자판기 커피 값이 비싸다며 가게주인과 시비하던 5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월 27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7월 26일 오후 4시30분께 울산 동구 화정동 B슈퍼 앞에서 이모씨(56.회사원)가 슈퍼 주인 김모씨(43)와 시비를 벌이던 중 김씨의 주먹을 피하려다 뒤의 철문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씨는 "서민들 돈도 없는데 자판기 커피값이 왜 400원이나"고 따지다 김씨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감한 시민상' 고교생 표창직전 자판기 상습절도 들통〉

성폭행범을 붙잡아 경찰서장의 표창을 앞둔 고교생이 절도 혐의로 붙잡혀 표창이 취소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만능열쇠 등을 이용해 커피자판기의 현금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이모(17·고교2년·수원시 팔달구)군을 검거했다고 지난 5월 19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 5월 16일 오후 10시10분쯤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S고교 뒤편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나는 장모(36)씨를 친구 황모(18)군과 함께 쫓아가 격투 끝에 붙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기로 돼 있었다. 이군은 상을 받지 못했으나 이런 공로가 인정돼 불구속 입건됐다.



<자동차판매기 현금·오토바이 상습 절취>

수원중부경찰서는 5월 15일 만능열쇠와 드라이버를 이용, 시내 자동차판매기 현금과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쳐 온 이모군(17. 주거부정)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 4월 13일 오후 11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S빌라 앞에 주차된 김모씨(21) 소유 오토바이 1대(시가 8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그동안 같은 수법으로 45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12대와 커피자판기 현금 등 모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자판기 상습절도 터키인 4명 영장>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7월 23일 전동드릴로 커피자판기 열쇠를 부수고 100여차례에 걸쳐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K(24.무직)씨 등 불법채류 터키인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새벽 1시경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D상회 앞길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의 열쇠구멍을 휴대용 전동드릴로 부순 뒤 자판기 안에 있던 현금 8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 5일부터 한달여동안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강원도 철원 등을 돌아다니며 커피자판기의 열쇠구멍을 같은 방법으로 부수는 수법으로 모두 101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0일 연천군 청산면의 도로에서 검문도중 달아난 K씨 승용차 번호판을 추적, 이들 4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22일 오후 1시경 경북 영천시내 한 모텔에서 격투 끝에 모두 붙잡았다.

<커피 자판기 통채로 훔친 간 큰 도둑>

울산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 31일 길거리에 설치해둔

커피자판기를 통채로 훔쳐 달아난 혐의로 부산시 동구 37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날 새벽 4시 45분쯤, 울주군 법서읍 천상리 천상정형외과 앞 길거리에 설치해 둔 45살 최모씨 소유의 450만원 상당의 커피자판기를 1톤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다.

한편 정씨는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최씨의 형이 경찰에 신고를 함에 따라 5분만에 검거 됐다.

일본 담배자판기, 종업원이 보는 곳에 설치해야

"담배자판기는 반드시 종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본 재무성은 7월 13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음식점과 슈퍼, 호텔 등 점포 내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종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배소매판매 허가에 관한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텔 로비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프런트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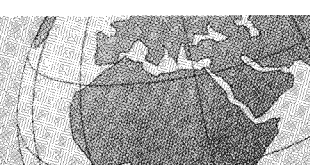
공장과 사무실, 관청 등 특정계층이 이용하는 곳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베트남 콘돔자판기 도입, 에이즈와 한판 승부



사회주의국가 베트남이 콘돔자판기를 도입, 에이즈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7월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정부기구(NGO)인 'DKT International'은 정부지원금 및 세계은행의 지



원을 받아 베트남의 자판기회사 EZ벤딩, 베트남가족 계획성과 함께 이 콘돔자판기를 하노이 시내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다.

한개에 500동(약 37원)인 이 콘돔은 이제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에이즈퇴치운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계획을 추진한 DKT의 린 메뉴인은 "남자 화장실이나 하노이 인근에 프랑스식민시대에 지은 오페라 하우스의 맥주홀 등에 이 자판기를 설치할 것"이라며 "곧 기차역이나 가라오케에도 콘돔자판기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 인구 8100만명인 이 나라에서 에이즈인구는 현재 8만 1000명 정도로 이 중 60%는 마약중독자이다.

그러나, 개방화바람이 불며 성매매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나 이들의 주요 고객인 젊은 군인들 사이에서도 에이즈가 확산돼 에이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판기설치는 세계은행이 지원한 미화 1만달러(약 1140만원)로 이뤄진 것으로 DKT측은 이 자판기가 앞으로 인기를 모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臺, 에이즈 감염 연소화 비상

=콘돔 자판기 교내 설치 검토=

성개방 풍조의 영향으로 최근 15세 소년이 성행위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등 에이즈 감염자가 급격히 연소화 됨에 따라 대만 보건 당국이 중·고교에 콘돔 자판기 설치를 검토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7월 20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해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사람들 간의 접촉이 뜸해지면서 에이즈 감염 증가율이 예년치 평균인 16%에서 9%로 대폭 떨어졌으나 15~24세의 에이즈 감염은 오히려 14%나 증가했다.

특히 이들 15~24세의 에이즈 감염자 중 80%가 성행위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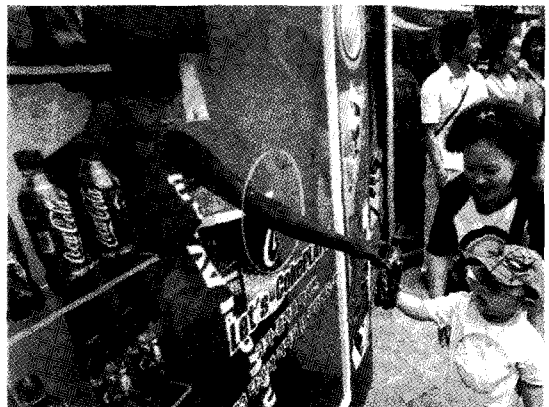
층에서 번지고 있는 인터넷 번개팅과 원조교제 등 문란한 성 풍조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위생서 질병통제국 라이안치(賴安琪) 에이즈 및 특수 질병 방역팀 과장은 7월 19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국제 에이즈 방역 포럼에서 "에이즈 감염자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져 중학교 1학년부터 실시하는 성교육을 초등학교 5학년으로 낮출 예정"이라면서 "올 연말까지 기차역, 백화점, 주유소 등지는 물론 필요하다면 학교 안에도 콘돔자판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에이즈 감염자는 2004년 6월까지 6천255명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6%에 달해 내년부터 에이즈 감염자가 매년 천명 이상씩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만 양밍(陽明) 보건 대학원 천이민(陳宜民)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 위험이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 동성애자보다 1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인간자판기〉》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을지로 두산타워 앞에서 한국코카콜라가 '누드 밴딩 머신'에서 콜라를 받고 음악과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는 판촉 행사를 벌이자, 아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콜라를 받고 있다.